
장애인에술 전용극장 조성을 위한 전문가 의견수렴 및 기초조사

- 최종 보고서 -

제 출 문

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 이사장 귀하

본 보고서를
〈장애인예술 전용극장 조성을 위한 전문가 의견수렴 및 기초조사〉
최종 보고서로 제출합니다.

2018년 12월

(주)메타기획컨설팅 대표이사 이 승 훈

목 차

1. 연구 개요	
1.1 과업 추진 목적 및 주요 내용	9
1.2 과업 추진 관점 및 체계	10
1.3 과업 추진 프로세스	11
2. 심층 인터뷰 조사	
2.1 전문가 그룹 심층 인터뷰(FGI) 개요	15
2.2 심층인터뷰 주요 이슈	16
2.3 주요 논의사항	17
2.4 장애인예술극장 조성을 둘러싼 5대 이슈	22
3. 장애인예술극장 조성 관련 5대 이슈	
3.1 이슈1: 목적성과 정체성	25
3.2 이슈2: 접근성과 예술성	30
3.3 이슈3: 입지조건과 공간구성	35
3.4 이슈4: 프로그램 방향성과 범위·역할	42
3.5 이슈5: 운영체계와 연계·협력	47
4. 향후 사업 추진 방향 및 프로세스	
4.1 라운드테이블 주요 논의 결과	53
4.2 사업추진 방향 및 기준점	55
4.3 사업추진 프로세스	57

1. 연구 개요

1.1 과업 추진 목적 및 주요 내용

1.2 과업 추진 관점 및 체계

1.3 과업 추진 프로세스

1.1 과업 추진 목적 및 주요 내용

□ 과업 추진 목적

- 장애인 예술가의 권리확보, 차별금지에 따른 예술활동 참여기회 확대 및 창작권·향유권 신장을 위한 전용 예술공간의 필요성 제기
 - * <장애인차별금지법> 제24조(문화·예술활동의 차별금지)
 - ** 국정과제 42-6. '장애인 문화·여가 접근권 강화'
- 장애인예술 전용 극장 건립을 위해 장애인예술 관련 기존 선행 연구 검토와 전문가 인터뷰, 국내 외 사례조사를 통해 장애인예술극장의 건립 방향을 설정하고, 추후 진행될 후속 준비 작업을 위한 추진과제 도출

□ 주요 과업내용 및 추진 체계

- 장애인예술 전용 극장 조성 과제 논의를 위한 자료 및 사례 조사
- 자료조사를 근거로 과제 발굴을 위한 분야별 전문가 FGI 및 라운드테이블
- 장애인예술 전용 극장 조성 추진계획 수립을 위한 과제 도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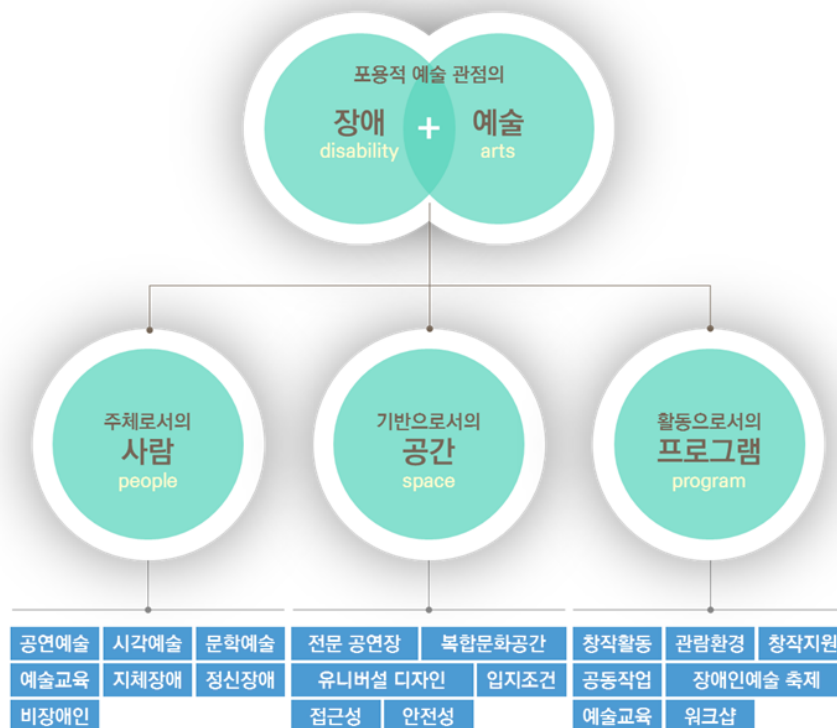
[그림 1-1] 과업 추진 체계



1.2 과업 추진 관점 및 체계

- 장애와 예술의 관계를 포용적 예술¹⁾의 관점으로 접근/해석하여, 장애인 예술 활동의 주체와 공간, 프로그램의 세 가지 측면에서 검토
- 활동 주체는 예술 장르의 측면에서 크게 공연예술과 시각예술, 문학예술로 구분할 수 있으며, 예술교육 활동과 관련된 주체들도 포함. 세부적으로는 장애 유형 및 정도에 따라 구분 가능
- 활동의 기반으로서는 공간은 전문공연장과 복합문화공간으로 크게 구분되며, 공간의 접근성, 안전성과 관련된 유니버설 디자인과 입지조건 등의 사항을 검토
- 활동 프로그램은 장애인 예술 창작자와 관람자를 위한 지원 및 환경 조성, 비장애인과의 협력 프로그램, 예술교육/워크숍 및 예술축제 등 장애인예술의 잠재적 가치를 포함

[그림 1-2] 연구의 관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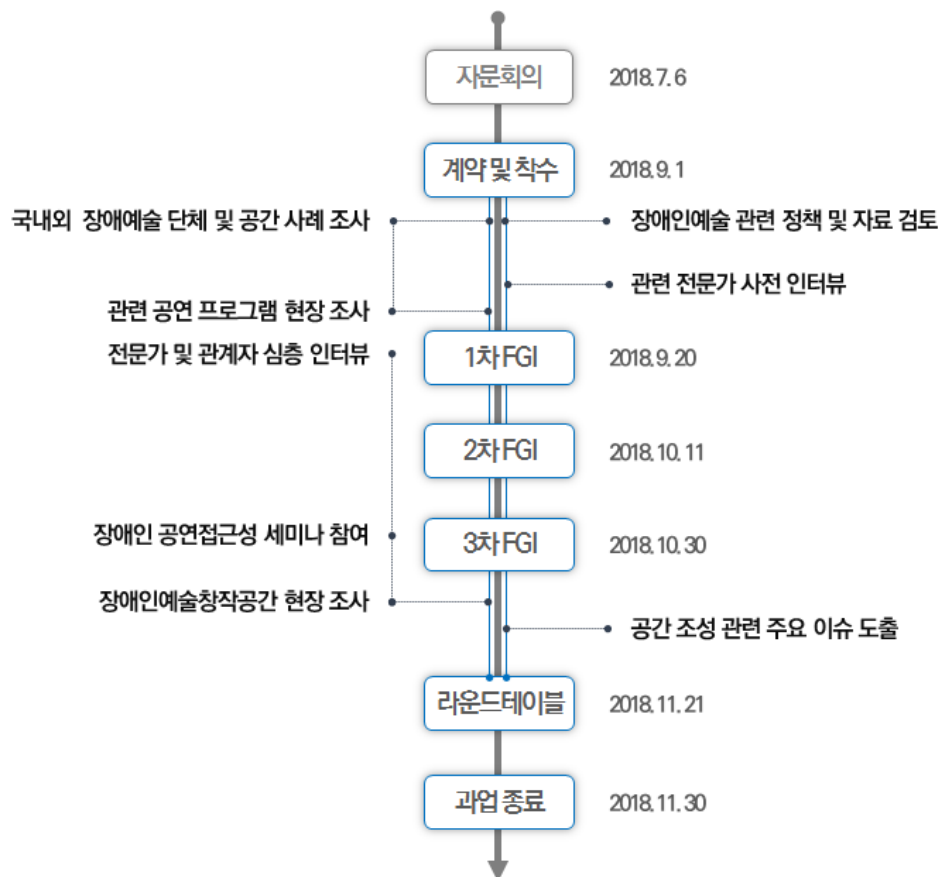


1) 포용적 예술(inclusive arts)에 대한 개념 및 정의는 호주의 아츠 액세스 빅토리아(Arts Access Victoria)와 멜번 대학이 공동으로 연구한 보고서(2015)의 내용을 준용하여, 예술과 장애(arts and disability), 장애 예술(disability arts), 장애인 예술가(artist with disability)의 세 가지 유형을 참고하여 재구성함

1.3 과업 추진 프로세스

- 전문가 자문회의를 통해 후속과제 진행 이전 극장 조성의 목적을 명확히 할 필요성과, 프로그램과 콘텐츠의 개발 및 운영 방향성 정립의 중요성이 논의됨
- 이후 본 조사연구계획이 마련되고, 연구에 착수한 이후 정책현황 및 기존 국내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향유 실태조사 등 연구자료의 검토와 함께 장애예술 전문가와 사전 인터뷰를 진행함
- 국내외 다양한 장애예술 연구와 활동 단체들 및 예술공간 사례들에 대한 넓은 범위의 사례 조사가 진행되었으며, 연구기간 전반에 걸쳐 국내 장애인 관련 예술공연 프로그램, 장애인 문화향유권 관련 학술행사, 창작공간에 대한 현장조사를 진행함
- 장애 예술가, 공연장 실무자 등 실효성 높은 의견을 듣기 위해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를 대상으로 그룹인터뷰 및 라운드테이블을 진행하고 공간 조성에 관한 주요한 이슈들을 도출함

[그림 1-3] 과업 추진 프로세스



2. 심층 인터뷰 조사

2.1 전문가 그룹 심층 인터뷰(FGI) 개요

2.2 심층인터뷰 주요 이슈

2.3 주요 논의사항

2.4 장애인예술극장 조성을 둘러싼 5대 이슈

2.1 전문가 그룹 심층 인터뷰(FGI) 개요

- 장르별 예술가, 문화예술공간 운영자, 프로그램 기획자, 유니버설디자인 전문가, 문화예술접근성 연구자, 장애-비장애 협업창작 프로젝트 활동가 등 다양한 장애예술 관계자 및 전문가들이 참여함
- FGI 총 3회에 걸쳐 12명, 사전 인터뷰 등을 포함해 전체 20명 내외 분야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함

[표 2-1] FGI 참여자 명단

대상 분야	참여자
공연예술	이OO 단장(하트 시각장애인 체임버 오케스트라)
공간운영	송OO 대표(사회적기업 엔비전스)
공간운영	서OO 매니저(잠실창작스튜디오)
공간조성	류OO 과장(한국장애인개발원 유니버설디자인환경팀)
공간운영	이OO 매니저(LG아트센터 하우스매니저)
공간조성	김OO 변호사(법무법인 한남, 작가)
공연예술	김OO 부장(한빛예술단)
공연예술	전OO (마림비스트)
공연예술	도OO 대표(더팬컴퍼니)
시각예술	최OO 대표(창작그룹 비기자)
공연예술	김OO 대표(극단 라하프)

2.2 심층인터뷰(FGI) 주요 이슈

- 장애인예술 전용극장 관련 선행연구와 정책적 논의사항들을 이슈별로 정리하여 관련 전문가, 현장 관계자들과 그룹 인터뷰를 진행함. 이슈를 토대로 실제적인 방안을 논의하고 향후 사업추진의 방향성을 도출함
- 장애인예술 전용극장의 현실적 필요 및 당위성, 국내외 장애인예술 활동 현황과 전용공간, 프로그램 운영 방향 등에 대한 현장 중심의 의견 수렴 및 공감대를 마련함
- 심층인터뷰 논의 이슈

- **이슈1_장애인예술의 의미와 역할, 활동 경향과 변화**

- 현재, 대한민국의 장애인예술은 어떤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고 보는가?
- 장애인예술 활동의 범위와 역할은 어디까지 확대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
- 최근 국내외 장애인예술의 활동 경향, 창작/향유 측면의 인상적인 변화가 있는가?

- **이슈2_장애인예술 전용 극장에 대한 수요와 필요성**

- 장애인예술을 위한 공간, 전용극장에 대한 현장의 의견과 수요는 어떠한가?
- 선도적 모델로서의 장애인예술 전용 극장이 조성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가?
- 장애인예술 전용 극장이 조성된다면, 그 역할과 위상은 어떠해야 한다고 보는가?

- **이슈3_장애인예술 전용 극장의 물리적 필요조건, 시설 및 설비**

- 장애인예술 전용 극장이 우선적으로 갖춰야 할 입지조건(접근성 등)은 무엇인가?
- 공연장의 적정 규모(무대/객석 등), 필요한 부대시설 등에 대한 의견은 어떠한가?
- 장애인예술 전용 극장의 특성상 포용적 접근이 필요한 시설/설비는 무엇인가?

- **이슈4_장애인예술 전용 극장의 운영적 특성, 프로그램 구성 제언**

- 장애인 전용 극장의 운영체계 준비 및 구성 과정에서 고려할 사항은 무엇인가?
- 적절한 연간 운영예산 규모와 재정 확보의 다각화 방안에 대한 의견은 어떠한가?
- 장애인예술 전용 극장의 특성상 포용적 접근이 필요한 프로그램은 무엇인가?

2.3 주요 논의사항

□ 1차 인터뷰

- 일시: 2018년 9월 20일 / 14:00~16:00
- 장소: 이음센터 커뮤니티룸
- 참석자: 하트 시각장애인 체임버오케스트라 단장, 사회적기업 엔비전스 대표, 서울시향 문화사업팀 차장, 잠실창작스튜디오 매니저 등
- 주요 이슈: 장애인예술의 의미와 역할, 장애인예술극장 수요와 필요성, 국내외 경향과 사례 등

[그림 2-1] FGI 1차 회의 장면



○ 회의 내용

1) 장애인 예술가가 주체가 되는 공간

- 활동공간이 부족하고 예술현장에서 소외되어 있는 장애인예술가의 기회보장을 위해 장애인예술 전용극장은 장애인 예술가가 주체가 되는 공간으로 추진할 필요 있음
- 장애인예술 전용극장의 경우 장애인들이 문화 생산의 주체가 될 수 있는 공간으로서 활용되도록 방향성을 잡아야 함
- 운영적으로는 스크린쿼터제처럼 공연장 대관 시 일정 부분 장애인 예술가(단체)들에게 대관 비율을 할애할 수 있는 방안도 고려할 필요 있음

2) 이용자로서 장애인 이용자의 의 요구

- 장애인 이용자, 장애인 예술가를 분리하여 고민해 볼 필요가 있음. 관객의 입장에서 는 입장에서는 장애인예술 중심의 공연이라면 즐겨 찾는 공간이 되지 않을 것임
- 장애인 예술'을 장애인·비장애인 모두가 즐길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노력이 병행되어야 함

3) 장애인예술극장 시설 및 서비스 요소

- 장애인예술극장은 접근성이 무엇보다 중요한 요소이며, 대중과 쉽게 만날 수 있는 위치에 세워져야 함. 하드웨어 뿐 아니라 극장 이용 안내지원, 이동지원 등의 서비스들의 필요성이 높음
- 다양한 장애의 형태를 고려한 편의가 제공될 수 있는 통합적 접근이 필요 하다 생각하며 공간 내 보조기구 확충이 매우 중요함
- 장애라는 요소를 포용하지만 너무 드러나지 않는 세련된 네이밍이 필요함

4) 국내 관련 프로그램 · 공간 운영 사례

- 서울시향 '발달장애인과 함께 하는 음악회': 장애인과 장애인 가족, 비장애인이 함께 공연을 볼 수 있도록 문화접근성 확대 측면에서 지속
- 어둠 속의 대화: '장애'보다는 '어둠'을 콘텐츠로 대중성을 확보하여 상설 전시/체험 공간 운영
- 잠실창작스튜디오: 장애인 예술가와 비장애인 예술가 협업, 장르간 협업 확대 추세

□ 2차 인터뷰

- 일시: 2018년 10월 11일 / 14:00~16:00
- 장소: 이음센터 커뮤니티룸
- 참석자: 한국장애인개발원 유니버설디자인환경팀 과장, LG아트센터 하우스매니저, '실격당한 자들을 위한 변론' 저자/변호사, 한빛예술단 성악부장 등
- 주요 이슈: 장애인예술극장의 물리적 필요조건 및 시설, 프로그램 운영 방향 등

[그림 2-2] FGI 2차 회의 장면



○ 회의 내용

- 1) 사용자 관점에서 폭넓은 시설검토 필요
 - 장애인예술의 타월성을 구현할 수 있는 첨단 기술을 적용한 보조장비 및 부대 설비

등의 조성계획도 초기 단계부터 함께 이루어져 공간구성에 효율성을 기함

- 모든 신체장애유형을 포괄하는 관람석 배치는 물론, 시각/청각장애를 보완하는 공감각적 예술향유경험까지 제공
- 비장애인과 장애인을 분리하는 방식이 아닌 배려의 공간철학 필요

2) 높은 수준의 접근성을 충족하는 공간 추구

- 국내 장애인정책의 발전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공간으로서, 가장 높은 수준의 접근성 충족 사례가 되어야 할 것임
- 예술공간인 이상 장애인 편의를 제공하여 통상적 접근성을 충족하는 것은 물론, 공간구성과 운영적 노력 자체가 예술성을 띠게 하는 '접근성의 미학'을 구현해야 함
- 유니버설 디자인은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보기 때문에, 장애인에 대한 편의뿐만 아니라, 전생애주기와 내부장애, 종교적 특성 등 모든 사람의 필요를 상정해야 함

3) 서비스디자인적 접근과 액세서빌리티 전문인력 육성/확산 역할 담당

- 일반 공연장에서는 접근성에 대한 구조적인 미비점을 맨투맨 서비스로 보완하고 있는데, 장애인 입장에서 불편을 최소화 하는 공간디자인이 필요함
- 해외 선진사례에서 일부 확인되는 바, 전문적인 경험을 축적한 '액세서빌리티 매니저'와 같은 인적자원의 육성도 병행되어야 함
- 장애인예술과 액세서빌리티 측면의 '실험적 공간'으로서, 향후 유사 예술활동 거점들이 생겨날 때 검증된 서비스와 노하우를 전수하는 역할을 해야 함

4) 명확한 공간조성 방향과 운영 목적에 따른 세부 계획수립 추진

- 유니버설 디자인의 적용과 건축 설비 등은 공간 조성의 방향과 운영 목적, 이용하는 대상자와 범위, 공간의 규모 등이 우선적으로 정립된 이후 그에 따른 방법론으로 보다 구체적으로 적용할 수 있음

□ 3차 인터뷰

- 일시: 2018년 10월 30일 / 14:00~16:00
- 장소: 메타기획컨설팅 회의실
- 참석자: 시각장애 마림비스트, 더팬컴퍼니 대표, 창작그룹 비기자 대표, 극단 라하프 대표 등

○ 주요 이슈: 장애인예술극장의 물리적 필요조건 및 시설, 프로그램 운영 방향 등

[그림 2-3] FGI 3차 회의 장면



○ 회의 내용

1) 장애인 예술창작, 협력 프로그램의 확대

- 비장애인 예술협업 환경은 나날이 개선되는 데 반해, 장애예술 지원공간과 창작환경은 기본적인 시설여건과 운영 측면에서 더욱 격차가 벌어지고 있음
- 2016년 조성되어 운영 중인 '경기 상상캠퍼스'의 경우, 다양한 분야의 활동 주체들이 모여 협력할 수 있는 구조가 마련되면서 점차 높은 수준의 결과물을 내고 있음
- 공연 공간 뿐 아니라 연습 공간, 창작 공간 등 다양한 장르 예술인들이 체류하며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한다면 협업을 활성화하고 장애예술 저변을 확장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임

2) 장애인 예술활동/향유 확대에 첨단기술의 적극적 연계

- 장애예술인들의 활동이 보다 적극적으로 확대되고 지속가능할 수 있도록 다양한 시도들이 이루어지고 있고, 첨단기술의 발전과 연계하여 보다 다양한 방법으로 구체화되고 있음
- 시각장애 연주자들이 지휘자의 움직임을 센서 자극을 통해 전달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시각화된 소리를 위한 진동' 프로젝트의 경우, 단순히 장비개발을 넘어서 시각장애인들의 예술 활동 참여에 보다 열린 기회를 가져다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이 같은 첨단기술을 적용한 보조기재의 활용을 통해 단순히 이벤트성이 아닌 일상적으로 장애예술인들이 비장애인과 협업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다면, 시각장애로 인한 음악활동의 장애는 많은 부분 해소될 것이라 기대할 수 있음

3) 예술 행위자로서 장애인에 대한 환경 조성 및 인식 개선 노력

- 영국과 일본 등 해외에 장애인예술 관련한 훌륭한 프로그램 사례가 많지만, 국내에 직접 적용하기에는 실제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음. 영국이나 일본은 장애인들의 생

활지원금만으로 기본생활을 영위하는 데 어려움이 없기 때문에 예술활동에 집중이 가능함

- 예술은 안전한 상태에서 나온다고 볼 수 있으며, 특히 장애인의 자립이 불분명한 상태에서 예술활동은 부모나 가족의 개입이 많아지고, 결국 창작의 주체성과 거리가 멀어지는 결과를 가져오게 됨
- 장애인예술 창작자가 지속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환경의 마련이 선행되어야 함. 장애인예술인 이전에 장애인의 생활환경에 대한 고민이 선행되어야 장래 예술가가 발굴될 수 있음

□ 심층 인터뷰 키워드

- 3회에 이르는 그룹 인터뷰 중 참여자들이 강조하거나 공통적으로 중요하게 생각하여 논의한 지점을 키워드화 함
- 다양한 입장에서 본, 장애예술 관련 공간이 조성되는 데 대한 정제·구체화되지 않은 기대지점을 읽어볼 수 있음
- 이후 공간조성 이슈를 도출하는 데 기반으로 활용함

#장애인예술가가 주체가 되는 공간 #배리어프리 #수어통역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접근 방식과 태도 #공간보다 서비스 #가족들이 함께 즐길 수 있는 공연 #자극적이지 않은 색, 조명, 여유공간 #문화향유권 #사회적 인식 #제대로 된 공연 #실제 시각장애인들이 진행 담당 #민간기업 투자 #점차 융복합 경향 확대 #장애예술가 범위 확대 #연습공간 등 부족 #공간의 타이틀이 주는 메리트 #장애인들이 문화생산 주체가 될 수 있는 공간 #장애인 이용자 관점 #대중과 쉽게 만날 수 있는 위치 #보조기구 확충 #세련된 네이밍 #한 사람의 인생이 바뀌는 경험 #장애인예술의 탁월성 향상 #첨단설비가 적용된 공간구성 #배려의 철학이 깃든 공간 #높은 수준의 예술성 #높은 수준의 접근성 #접근성의 미학 #상징적 의미의 공간 #문제 해결을 위한 서비스 디자인 #액세서빌리티 매니저 #실험하고 확산하는 공간 #방향과 목적이 우선 #유니버설 디자인은 거들 뿐 #중장기적인 확산 전략 #협업구조 #활로를 모색하는 공간 #첨단기술 발전과 연계 #시각화된 소리를 위한 진동 #안전한 상태 #지속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환경

2.4 장애인예술극장²⁾ 조성을 둘러싼 5대 이슈

□ 공간조성 이슈의 도출

- 장애인 문화향유권 확대, 생활권 보장, 장애예술의 발전, 최고시설의 공연장, 접근성 확보체계, 유니버설 디자인 일반화 등 광범위하게 논의된 공간조성에 대한 기대와 현실적 문제제기를 다섯 가지 카테고리로 나눔
- ‘공간이 명확한 정체성을 드러내야 함’, ‘최고수준의 접근성을 가질 것’, ‘특별한 시설로서 공간에 기본적 필요지점과 특이성이 존재함’, ‘프로그램 방향성과 운영에 있어 장애인예술과 장애예술의 장르에 기반한 특수성은 지키되 포용성을 가지고 확장된 역할을 해야 함’, ‘최초의 시도로서 의미를 넘어 지속운영이 가능한 운영체계에 기반하고 있어야 함’
- 다섯 가지 이슈가 다층위의 문제와 연결되어있어 각 두 가지, 총 10가지 접근과제를 도출함

[그림 2-4] 장애인예술극장 5대 이슈



2) 심층 인터뷰 과정 중, ‘장애인예술전용극장’이라는 공간명 지칭에서 ‘전용’이라는 단어사용이 갖는 공간이용자/수용장르 제한과 같은 함의에 대한 우려가 반복적으로 나타났으므로, 조사 진행단계에서 줄임말로써 ‘장애인예술극장’과 혼용함

3. 장애인예술극장 조성 관련 5대 이슈

- 3.1 이슈1: 목적성과 정체성
- 3.2 이슈2: 접근성과 예술성
- 3.3 이슈3: 입지조건과 공간구성
- 3.4 이슈4: 프로그램 방향성과 범위 · 역할
- 3.5 이슈5: 운영체계와 연계 · 협력

3.1 이슈1: 목적성과 정체성

(1) 장애인예술극장 조성·운영의 궁극적인 목적은 무엇인가?

- 장애인의 예술활동을 보장하면서도 비장애인과 차별 없이 어우러지는 공간
 - 장애인예술 전용극장은 장애 예술가가 주체가 될 필요 있음. 현재는 장애인예술단체들에 극장 대관이 어렵고 소외되는 상황이 많이 발생함. 공간제공으로 장애예술가에 활동범위를 보장할 필요 있음
 - 책과 드라마, 영화를 통한 장애인의 등장이 장애인을 타자에서 이웃으로 여기게 하는 인식개선효과가 있는 것과 같이, 문화공간에서부터 장애나 개인적인 불편에 구애받지 않고 일상적인 만남이 이루어져야 함

“장애인예술, 극장과 관련해서는 장애 예술가로 국한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향유자와 소재로서의 장애는 포함시키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장애예술단체가 쓸 수 있는 공간이 부족한데, 장애인예술전용극장의 필요 목소리가 왜 나왔는지 생각해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영화의 스크린쿼터제와 같은 방식으로 대관/행사 기획 단계부터 소외되는 장애예술가에 활동범위를 보장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시각장애를 가지고 활동하는 당사자이기도 한 입장에서, 전용극장을 바라보는 장애예술가와 장애인 이용자로서의 입장은 구별됩니다. 공간을 직접적으로 필요로 하는 곳은 장애예술가가 절실할 것입니다. 하지만 향수권자의 입장에서는 장애인만 가는 곳이 되어 대중과의 접점을 더욱 잃어버리게 될까 우려되는 것이죠. 인터넷만 해도 장애인 전용페이지를 전부 없애는 추세로, 같은 페이지를 불편 없이 쓰도록 하고 있잖아요. 더구나 대중과 함께 만나서 호흡하려는 목적을 가지는 문화예술공간 이라면 끼리끼리 모이도록 특화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고 봅니다.”

“이런 특별한 공연이나 시설들을 만들고 홍보하고, 이 시설의 정체성을 부여할 때도 워딩 하나하나를 조심해야 한다는 거죠. 아주 이상적인 배리어 프리 공간인 동시에 새로운 예술적인 것을 시험하는 공간인 것이지, 일반 시설을 가지 못하는 장애인들을 위한 복지 시설이 아니라는 점을 사람들이 인식하도록. 준비 과정에서 시설의 정체성이 일반 시설인 프라를 이용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곳이라고 하면, 물론 그런 기능이 이 시설에 있지만, 있다 하더라도 정체성을 그렇게 접근하면 안 된다고 봐요.”

□ 특수 공연프로그램을 통한 접근을 넘어 배려를 전제한 사회문화적 합의 도출, 자유로운 감상 환경의 일반화 과제

- 장애인이 차별 없이 문화예술을 향유할 권리와 방안에 대한 논의는 현재 기초적 단계에 있음
- 최근 다양성 문화정책 논의가 점진적으로 이루어지고 해외 장애예술과 접근성 발전 사례를 접하면서 한국형의 장애예술 발전방안과 장애인식 변화 방향성을 모색하고 있으며, 차별화된 공간형식과 운영체계로서 시범을 보일 수 있는 인식전환의 장이 마련될 필요 있음

〈서울시향, 발달장애인과 가족을 위한 클래식 공연〉

- 발달장애아동의 공연 중 소란으로 장애인 공연관람권에 대한 논의 촉발(2017.7)
- 발달장애인과 가족을 대상으로 한 공연 '행복한 음악회, 함께' 정기 공연
- 영국 BBC PROMS(야외공연을 포함하며, 격식에 얽매이지 않는 분위기에서 감상하는 대규모 대중 클래식 축제)를 모티브로 함
- 자유로운 연주와 감상 환경 제공, 악기설명을 포함한 알기 쉬운 해설과 프로그램 노트 등에서 차별성을 둠
- 청소년 장애인 협연, 대중적인 곡과 정기공연 연주 레퍼토리를 섞은 프로그램 준비
- 현 3회까지 클래식 공연장이 아닌 종교시설, 연극 공연장에서 진행하며 적합한 공연 형식을 실험 중에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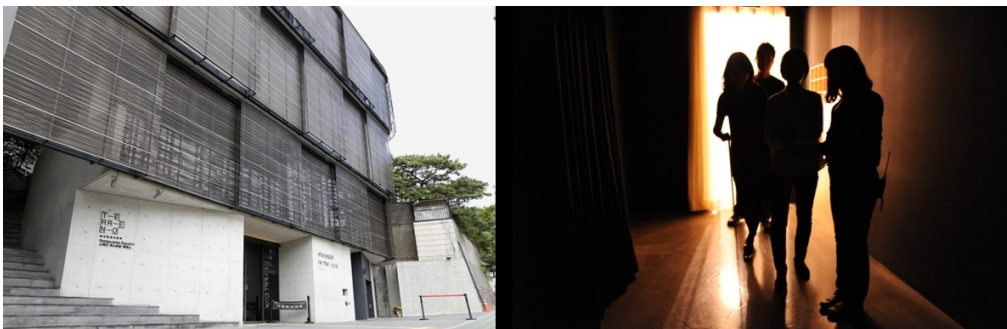
(2) 장애인예술 전용 극장인가? 장애인예술극장인가?

□ 예술가 혹은 관객, 장애인 혹은 비장애인 누구에게나 열린 공간의 지향

- 장애 예술가나 장애인 관람객 모두 문화예술공간이 장애인에게 전용되기를 바라지 않음. 장애인만 전용하는 공간을 탈피하기 위해서는 상영/전시되는 콘텐츠가 높은 수준의 예술성이나 창의적인 접근방식으로 대중에 일반적으로 소구하는 가치를 가지고 있어야 할 것임
- 높은 예술성과 대중성을 갖추면서도 이 공간만이 가진 차별적 정체성으로서 장애예술³⁾과 다양성의 가치를 운영프로그램을 통해 드러낼 필요 있음

〈어둠속의 대화 Dialog in the Dark〉

- 독일에서 시작된 '어둠속의 대화'는 시각장애인 당사자에게 특화된 공간으로서 전시, 체험 진행을 실제 시각장애인들이 담당함
- 주 관객층이 비장애인이기 때문에 '장애인의 도움을 받아 관람하는 전시'라는 인식을 갖게 되면 콘텐츠에 대한 집중도가 떨어지는 경우가 발생함. 따라서 오히려 안내자가 시각장애인이라는 사실이 부각되지 않도록 운영하고 있음
- '장애'보다는 '어둠'을 콘텐츠로 활용하여 낭독콘서트, 연주회 등을 기획하고 있으며 시각을 배제한 다른 감각들을 통해 새로운 경험을 할 수 있는 문화공간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노력 중
- 민간기업의 투자를 받고 있으며 현재까지 약 40만 명의 관객들이 방문함



3) 장애인예술: '장애인'이라고 특수하게 정의된 사람들이 창작과 표현의 주체가 되는 예술활동
장애예술: '소수자'로서의 장애인이 주체가 되는 예술(소수성을 지향하며 기존의 특정된 아름다움과 척도를 문제로 삼는 예술장르), '무대 위 장애예술, 그 해석과 제언', 장애문화예술연구소 짓(2013. 12)

□ 모두를 위한, 유니버설 디자인시설로서 상징성 확보

- 장애인차별금지법이 형식적인 측면이 있고, 장애인정책이 선진국가들에 비해 뒤떨어져있는 현실을 타개하기 위한 일환으로서, 소수자 본위의 문화예술공간을 마련하는 일은 장애인정책 발전을 위한 노력을 가시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계기가 되고 후에 높은 가치와 상징성을 갖는 건축물로 남을 수 있을 것임
- 건축디자인 목표로서 종래 편의증진이라는 개념으로부터 더 나아가 유니버설 디자인으로, 모든 사회구성원을 대상으로 하는 개념 전환이 이루어지고 있음. 비단 장애인을 위한 시설이 아니라 대표적 유니버설 디자인 사례로서 회자될 수 있는 랜드마크 공간이 되어야 할 것임

“미국의 ADA법을 보면, 시설별로, 기차는 리모델링할 때는 어떻게 해야 한다는 지침까지 다 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이렇게 해야 한다는 권고사항만 있죠. 굉장히 부끄러운 안 지켜도 되는 법. 근데 그걸 다른 나라에서 와서 봤을 때, 한국은 장애인들에 대한 선진국의 법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하기도 해요. 저는 안 지켜도 되는 법이기 때문에 사실은 부끄러웠습니다. 이렇게 장애인예술전용극장을 만든다는 것이 저희가 그걸 지키고, 더 발전시키는 것이거든요. 선진화되고 있다는 것을 밖으로도 보여줄 수 있는 사례가 되지 않을까 합니다.”

“혼자서도 하려고 하면 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드는 게 가장 필요할 것 같아요. 우리가 아직까지는 그게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장치와 설비들을 계속 더하고 더하는 모습들만 보여주고 있는데. 물론 공간이 부족하고 협소해서 필요에 의해서는 그런 장치가 필요할 수는 있지만, 그런 게 없는 공간. 제약과 한계에서 벗어난 것을 만들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런 면에서 랜드마크가 되면 어떨까 해요. 항상 누군가에게 요청을 해야 하고, 요청을 하지 않으면 접근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은 굉장히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아요. 본인들이 남을 의식하지 않고 문화를 즐길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져야 하지 않을까 생각해요.”

□ 가변적이면서도 효율성 높은 공연 공간의 기준점을 제시해 변화를 선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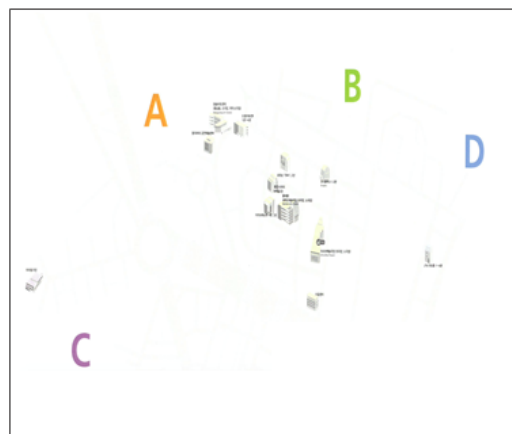
- 배리어프리 인증 제도를 시행하고 있지만 실제 사용가능하게 적용된 곳을 찾기 어려우며 만족스러운 수준의 예술·문화 접근성을 갖추도록 독려하기 위해서는 선도시설 건립으로 모범사례를 보여주는 방안이 현실적임

- 실제 공연장 운영자가 접근성을 갖추는 데 소극적인 이유는 시설구축에 쓸 수 있는 예산의 부족과 객석공간효율 저하로 인한 영업이익 감소를 들 수 있을 것임. 제도적 강제나 자금지원으로는 소수자 문화향유권을 높이는 여건을 마련하는 데 한계가 있으므로, 가변적으로 구성해 더 많은 관객층을 유입시키고 창의적으로 다양한 운영을 모색할 수 있는 첨단 건축모델을 제시해 공연문화의 획기적인 전환점을 제공할 필요 있음

〈휠체어이용자 접근성 만족 공연장 현황〉⁴⁾



전체 대학로 공연장



휠체어 접근성만족 공연장

“대학로에 위치한 공연장 약 120곳 중에서 휠체어 이용자가 활동보조 없이 입장할 수 있는 공연장은 14곳이다. 그 중 휠체어 이용자가 창작자로 이용할 수 있는 공연장은 사실상 1곳이며, 음향 및 조명 조정실에는 접근할 수 없다. 정기적으로 수어통역, 문자통역, 화면해설 등 배리어프리 시설 정보를 제공하고 공연을 상연하는 공연장은 없다”

4) Oset project_극장편 (2018.10.), 실태조사, 재구성 이미지 인용

3.2 이슈2: 접근성과 예술성

(1) 장애인예술극장이 추구해야 할 접근성의 수준은 어디까지인가?

□ 모든 사람을 포용하는, 가장 고난도 이용자 범위의 설정

- 기존 공연장의 개축으로는 요구되는 수준의 접근성을 만족하기 어려움. 수어통역자 공간 등 많은 접근성시설이 공연장 최초설계부터 준비되어야 하는 것이 많기 때문
- 유니버설 디자인은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보기 때문에, 장애인에 대한 편의뿐만 아니라, 전생애주기와 내부장애, 종교적 특성 등 모든 사람의 필요를 상정해야 함

“호흡기를 끼고 누워서 생활하는 와상장애인도 최적의 각도로 공연을 볼 수 있는 공연장을 확보한다는 생각으로 만든다면. 예측할 수 없는 워낙 많은 경우들이 있으니, 창작자와 관객들의 거의 모든 가능성에 대해 엑세서블하게 열려 있는 특정한 공연장을 만드는 것에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또 이것이 보편성과 대치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복지적인 공간이긴 하지만, 사실 완전히 보편적인 공간을 만들어 내는 거죠. 모든 사람들에게 가능하게. 또 어떤 장애 예술의 홍보 수단이 될 수 있겠죠.”

“배리어프리 룰은 어느 정도 다 나와 있거든요.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법이나 인증을 여기에 담으려고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것 그 이상을 담아야 할 것 같아요. 장애인예술전용극장이라는 표현도 상징적인 의미로 좋은 의미가 있을 것 같긴 한데, 저희 쪽에서도 편의증진이라는 이름을 버리고 유니버설 디자인이라는 이름으로 바꿨거든요. 장애인을 타깃으로 해서 편익을 증진했던 게 목적이었던 것을 유니버설이라고 해서 모든 사람이 접근 가능한 공간이라는 개념으로 방향을 바꿔가고 있는 거예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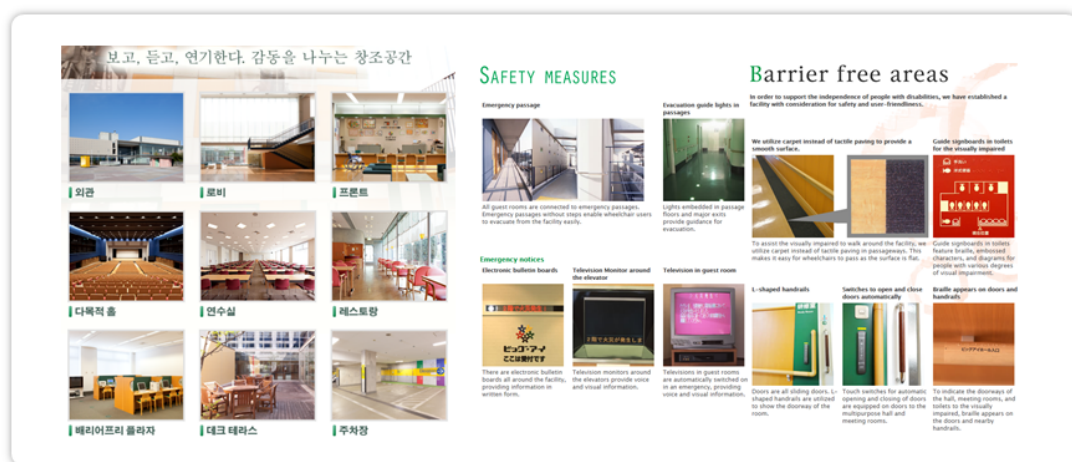
“저희가 UD얘기를 하면서도 대상으로 하는 게 휠체어와 시각장애인을 제일 많이 해요. 거기서 소외된 게 청각장애인이고, 더 많이 소외된 게 지적, 발달 장애인. 신체적 장애가 없으신 분들에 대한 배려가 많이 안 되어 있어요. 법이나 매뉴얼에도 거기까지 배려되어 있는 부분이 없거든요. 미국, 일본을 보면 내부장애부터 해서 알려지까지. 굉장히 많은 곳에서 배려를 하고 있거든요. 거기 식당이 있다고 하면 식당에서 알려지, 할랄까지 다 배려하고, 이슬람 종교 기도실, 지적장애인을 위해 성인기저귀 교체공간까지 마련해 준다든지. 그런 디테일한 부분에서 차이가 납니다.”

□ 가장 높은 수준의 접근성을 충족하는 공간

- '접근성' 개념에 대한 이해부터 일반적이지 않은 현실에서 '접근성에 특화된 예술 공연장'이란 최초의 시도이므로, 생각할 수 있는 가장 고난도의 이용자까지 대상으로 상정하고 모든 창의적인 시도가 허용되는 기회로 삼아야 함
- 외곽의 입지와 운영프로그램의 미비로 인해 실패사례로 지적되는 'Big-i'사례에서도 물리적 시설의 접근성 만족도는 가장 높다고 할 수 있음. 'Big-i' 수준 이상의 높은 시설적 접근성을 갖추면서도 문화예술공간으로서 특징적인 접근성 구축 사례가 되어야 함

〈일본 국제장애인교류센터 'Big-i'〉

- 공연장, 회의장, 교육실, 세미나실, 강의실과 호텔이 한 동선에서 연결되는 국제장애인교류센터
- 인체공학적 시스템설계, 장애인 대피통로는 일반인도 사용할 수 있는 분위기이며, 휠체어 접근이 가능. 경사로 동선으로 구성된 공연장, 전동휠체어 4대 이상과 일반인도 같이 탈 수 있는 엘리베이터, 턱없는 도로 등의 세심한 조성으로 일반적 접근성 만족에 있어서는 훌륭한 평가를 얻음



빅아이 시설 안내

〈Emotional Safety 추진단 구성 및 운영〉

- 유니버설 디자인 환경 조성, 다양한 공간으로의 접근성 강화
- 배리어 프리 기준에 준해 휠체어 장애인의 동선 현황을 검토, 개선 가능한 동선 개선안을 도출한 사례



〈ES추진단 1일 휠체어체험〉

“ES추진단의 우선 과제는 '누구나 접근 가능한 공연장 만들기'다. 유니버설 디자인 개념을 접목해 휠체어가 출입하고 이동하는 공간과 주요 시설을 직접 체험하고 숙지함으로써 개선 계획을 마련했다. 초보적인 단계부터 장기적인 계획이 필요한 전문적인 단계까지 유니버설 디자인 관점에서 세종문화회관 이용자 모두에게 신뢰를 나누기 위한 점진적인 활동을 시작했다.”

“더불어 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도 기획하고 있다. 유니버설 디자인에 대한 내부의 공감대 형성과 인식 변화는 궁극적으로 '감성적 안전'의 밑거름이 될 것이다. 유니버설 디자인의 실현은 전문가 시선이나 평균적(이라고 믿고 있는) 시선이 아니라 이용자의 시선에서 바라보고 생각하며 수용하는 힘, 즉 '유니버설 생각 (universal thinking)'에서 비롯되기 때문이다.”⁵⁾

5) 한국경제 에세이 〈유니버설 디자인〉 중 발췌(2018.11.28)

(2) 물리적 접근성 뿐 아니라 프로그램과 운영적 차원의 접근성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 "접근성을 가지려는 노력 자체가 예술적이 되어야"

- 문화예술 활동에 있어서 접근성은 두 가지 측면이 있음. '예술에의 접근성'은 일반적인 공연장의 물리적 편의시설에 따른 접근성을 의미함. 물리적 접근성을 넘어 모든 사람에게 예술적 체험에 대한 동등한 접근을 가능하게 하는 제반 절차와 기술, 시설, 제도, 예술적 표현 등은 '접근성의 예술'을 통해 가능함
- 공연장이 높은 수준의 접근성을 갖추는 것만으로는 선별적 복지와 역차별의 문제를 안게 됨. 이 공간의 목표는 접근성의 예술 개념까지 만족해야 함. 접근성을 확보하려는 예술적 시도가 공간, 프로그램, 서비스 모든 방면에서 이루어질 때 가치를 갖게 됨

“예술공간을 만들 때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접근성의 미학이에요. 모든 사람들에게 열린 접근성을 확보하는 작업 자체가 어떤 예술성을 띠게 만드는 겁니다. 청각장애인이 음악 경험을 할 수 있는 접근성을 갖추는데, 그 자체가 예술적인 시도인 것이죠. 음악을 시각적 예술로 바꾸는 등. 영국의 Graeae theatre에서도 음향으로 음성 해설을 하는데, 아주 건조하게 정보를 전달하지 않고, 음성 해설 자체를 굉장히 시적으로 해요. 시각 장애인들이 공연의 상황을 파악하게 하는데, 거기서 그치지 않고, 그 자체를 하나의 예술 형식화하는 거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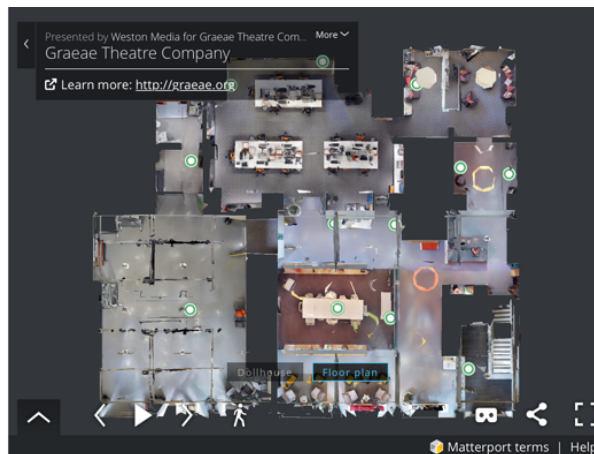
저는 우리가 만드는 공연장은 높은 수준의 Accessibility를 갖춰야 한다는 건 너무 기본이고, 이런 접근성을 확보하는 것 자체가 특이한 예술적 시도들로 이 공간이 가득하게. 휠체어 램프를 하나 만들더라도 미술작품으로 만든다든가, 이런 식으로 풍부하게 공간을 구현하면 배리어프리한 공간에 더해 이 건물자체가 예술성이 가득한 공간이 되는 것이죠.”

□ 다양한 경로의 대체적 예술체험이 가능한 실험적인 공간

- 해외사례로서 영국 장애인극단이 접근성 연구에서 가장 첨단에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며, 예술접근성 만족 방안으로서 공간디자인, 서비스디자인은 물론 공연작품자체에 다양한 유형의 접근성 기재를 통합하는 시도를 지속함

〈그라이아이 시어터 Graeae Theatre Company〉

- 1980년 이후 40여 년의 역사를 갖고, 공연 접근성의 미학을 가장 선구적으로 구현하고 있는 단체
- 2012 런던올림픽 개막식 공연 Unlimited 참가
- Prometheus Awakes와 같은 스펙터클한 야외 퍼포먼스아트, 창작연극, 뮤지컬 다수 제작 공연
- 그라이아이 상주 전용건물인 브래드버리 스튜디오. 장애인 아티스트에 이상적인 접근성을 확보한 사무실과 연습장 공연장 포함함
- 시각장애인을 위한 시각요소의 묘사 음성해설 서비스, 청각장애인을 위한 영국식 수화 및 자막 공연 통합



〈브래드버리 스튜디오 안내. 3D 동선 시뮬레이션 화면〉

○ 그라이아이 시어터 접근성 제공방식

- 지체장애인: 접근가능한 공연장소의 확보 (무대와 무대 뒤, 관객 공간 전체)
- 청각장애인: 영국식 수화 및 자막을 공연에 통합. 의사소통 수단인 동시에 창의적인 요소로 작품에 적용
- 시각장애인: 헤드셋을 통해 시각요소를 묘사하는 음성해설서비스 제공. 해설방식에 미적인 요소 도입. 또한 공연 전 무대세트와 무대 모형을 만져보는 '촉각여행' 진행
- 지적장애인: 이야기와 등장인물이 단순한 영어와 그림으로 묘사된 쉽게 읽히는 시놉시스 제공

3.3 이슈3: 입지 조건과 공간 구성

(1) 입지를 결정하는데 가장 우선순위가 높은 조건은 무엇인가?

- "규모와 비용적 부담에 따라 외곽에 위치시킨다면 접근성이 떨어져 본질적 필요와 설립 취지에서 벗어나 아무도 찾지 않게 될 것"
- 일상적으로 찾아가볼 수 있는 가까운 위치에 충분한 규모로 접근성 시설을 갖추고 주변시선을 의식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최적의 입지
- 장애인 예술 극장의 건립이 가져올 정성적 가치가 행정상으로도 인정받을 수 있도록 일반 시설 평가와 별개의 기준이 마련되어야 할 필요 있음
- 유니버설 디자인의 적용과 건축 설비 등은 공간 조성의 방향과 운영 목적, 이용하는 대상자와 범위, 공간의 규모 등이 우선적으로 정립된 이후 그에 따른 방법론으로 보다 구체적으로 적용할 수 있음

“장애인 예술극장을 외곽에 크게 지어놓거나 하면 거길 장애인이 어떻게 갈 것이며 보러 올 사람이 거의 없을 것 아닙니까. 서울 시내 한가운데 큰 공간을 여는 것이 좋은데 현실적으로는 어려울 겁니다. 때문에 획기적인 생각의 전환이 없으면 전용극장을 하는 것이 힘들겠다는 안타까움이 있어요. 접근성 좋은 곳에 충분한 시설도 갖추고, 특히 발달장애인들이 소리를 지르면서도 함께 관람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할 공연장을 가지는 것이 이상적이겠지요.”

“9년 전 처음 '어둠속의 대화' 장소를 알아볼 당시, 처음 설립취지 등을 듣고 호의적이었던 곳에서도 시각장애인들이 많이 일하게 된다는 설명을 한 후에는 등 돌리는 곳이 있었어요. 지금 '어둠속의 대화'를 유치하고 싶어 하는 곳이 많은 것은 그간 이 콘텐츠가 대중적 인지도를 얻었기 때문이죠. 장애예술인의 문화활동이 대중인식 속에 스며들도록 좋은 공연이 많이 생겨야 할 것입니다.”

“장애 예술인들이 궁극적으로 바라는 것도 더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퍼포먼스를 찾아주는 것이니까요. 물리적 인프라 이상으로 인식에 대한 고민이 있어야 합니다. 시설이 지어지도록 설득하는 논리로 활동가치를 인정하는 정성적인 평가의 기준이 마련될 필요가 있겠습니다.”

- 공간별로 필요한 구성과 면적, 형태와 그에 따른 최적의 입지조건 검토 필요
 - 복합문화공간은 공연공간과 창작 및 교육공간, 편의공간 등의 조합 방식에 따라 중심기능을 달리하는 세 가지 유형으로 나누어볼 수 있음
 - 각 유형의 중심적 공간기능에 따라 운영조직의 전문성, 운영 프로그램은 물론 필요 면적과 위치 등의 입지 조건부터 달라짐. 다양한 계층의 요구를 수용해야 하는 장애인예술극장의 사회적 역할과 중심적 기능에 대한 충분한 논의가 필요함

[그림 3-1] 공간구성 유형



(2) 장애인예술을 충분히 포용할 수 있는 공간의 형태와 규모, 시설 및 설비는 무엇인가?

- 가변적 공간활용으로 프로그램적 다양성과 대중에 대한 개방성의 확보
 - 현재 조성되고 있는 공연장을 일러 3세대로 보고 있으며, 3세대 극장의 특징으로서 공간조성 기술력을 바탕으로 한 프로그램, 운영 모든 측면의 비정형화 경향을 찾을 수 있음
 - 공간활용도를 극적으로 높여야 할 장애인예술극장에서 현재 극장조성 경향의 최대 화두인 가변성(Flexibility)에 대해 이용자 접근성확보 측면과 콘텐츠수용 · 프로그램 범위의 양 방면에 활용하는 공간조성방안의 연구개발이 이루어져야 함

〈3세대 극장의 특징〉⁶⁾

- **공간적 측면: 완성도 높은 가변성, 공간의 개방성**
 - 정형화되지 않은 오디토리엄(무대객석공간), 가장 정형화 되어있어야 할 전용극장조차 자유롭게 변화되는 유연성을 가짐. 각각의 변화된 상태에서 극장으로서 높은 완성도를 보이는 형태적 특징
 - 오디토리엄의 개방성, 다양한 형태의 프로그램을 수용하게 되는 극장의 내부 공간과 함께 오디토리엄 외부의 다양한 영역과의 연결성
- **프로그램적 측면: 공연 장르를 벗어난 탈장르. 다양성**
 - 극예술 공연장르 한정성을 벗어나 모든 문화적 소스가 프리젠테이션 되며, 개별 극장공간이 다양한 역할수행
- **운영적 측면: 운영 자립성, 시민성, 대중성의 확보**
 - 극장 가동률 증가와 함께 부대 상업시설의 적극 활용
 - 보다 많은 사람들이 해당 극장을 방문하고, 사회적 화제에 오르며 시민들의 일상 속의 공간으로 자리 잡은 극장



〈공연장조성환경 변화 동향〉

□ 3세대 극장의 경향성을 갖는 해외 공연장 사례

1) 세인트 앤스 웨어하우스(St. Ann's Warehouse)

- 유연하고 개방적인 공간적 특성 기반으로 공연과 축제, 커뮤니티 행사 등의 콘텐츠의 수용 범위가 넓고, 다양한 창작자와 예술가, 관객들이 이용할 수 있는 가변적인 공간적 연계 가능성을 지닌 공연공간

6) '극장 컨설팅과 3세대 극장', 강재훈, 2017.9. 내용 발췌

- 브루클린 브릿지 하부에 위치하고 있으며, 프로그램에 따라 내부 공간의 구성을 다양하게 조정 가능
- 구성에 따라 300~700석 규모로 조정이 가능한 메인 공간은 음악 공연, 축제, 커뮤니티 행사 등 다양한 활동 수용 가능
- 공연공간 외에 다목적 스튜디오, 야외 정원 등으로 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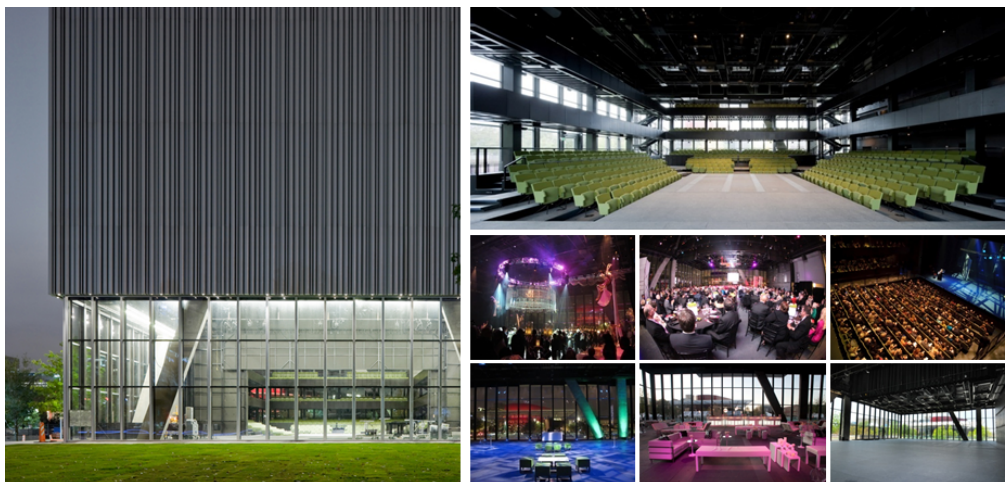
[그림 3-2] 세인트 앤스 웨어하우스



2) 와일리 씨어터(Wyly Theater)

- 객석과 무대 구성의 유형 변경이 가능하고 내·외부 공간이 시각적으로 연계되어, 일반적인 공연장 형태가 아닌 박스형 공간에서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무대 유형과 이에 따른 다양한 프로그램이 가능함

[그림 3-3] 와일리 씨어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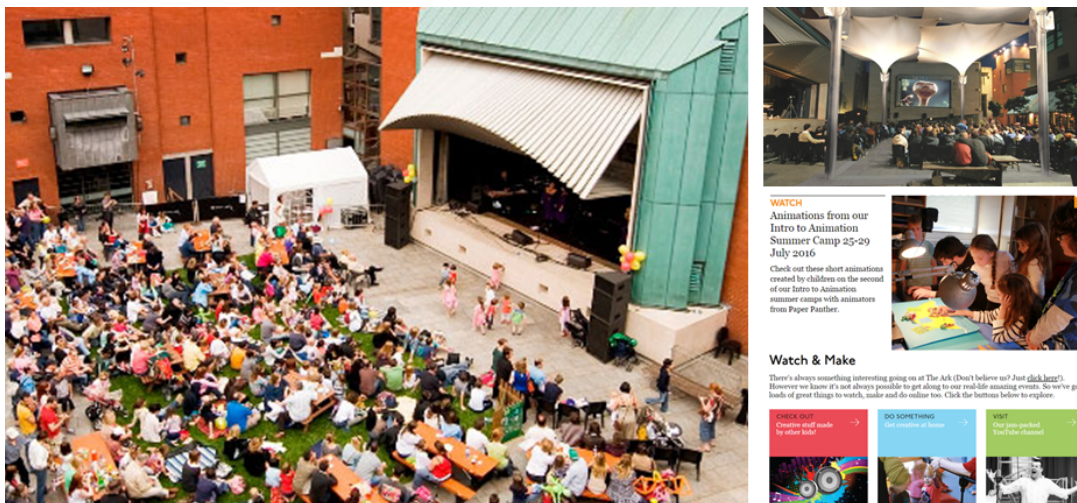
- 2009년 미국 달라스의 AT&T 아트센터 내에 조성된 공연장
- 가변형 객석 시스템을 통해 400~800석 내외의 다양한 공연/이벤트 공간으로 활용
- 벽면을 유리 소재로 마감하여 야외공간과의 개방성을 확보 하고 있으나, 필요할 경우 완벽한 차광이 가능함

3) 디 아크(The Ark)

○ 아일랜드 더블린에 위치한 공연장으로 실내 공연장과 야외 광장이 연결되는 독특한 공간으로 축제/공연 뿐 아니라 체험형 공연/전시, 워크숍 등 어린이/가족 단위 관객들이 함께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 운영

- 아일랜드 더블린에 1991년 조성된 어린이가족 극장 '디 아크'는 실내 공연장의 무대 뒷면이 개방되어 광장과 직접 연결되는 형태로, 내·외부 공간을 연계 활용하여 축제/공연 등이 가능함
- 예술가들과 연계하여 체험형 공연, 전시, 워크숍 등 어린이를 위한 전문 프로그램을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음

[그림 3-4] 디 아크



□ "첨단기재의 활용, 예술적 탁월성 높이는데 필수적"

○ 장애로 인한 불편을 보완하는 기술들이 개발된 사례는 많이 접하고 있으나 아직 현장에 적용된 경우는 많지 않기 때문에 장애인예술 극장이 조성된다면 이러한 첨단 기술의 적용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도 필요함

- 장애예술인들의 활동이 보다 적극적으로 확대되고 지속가능할 수 있도록 다양한 시도들이 이루어지고 있고, 첨단기술의 발전과 연계하여 보다 다양한 방법으로 구체화되고 있음
- 첨단기술을 적용한 보조기재의 활용을 통해 단순히 이벤트성이 아닌 일상적으로 장애예술인들이 비장애인과 협업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다면, 시각장애로 인한 음악 활동의 장애는 많은 부분 해소될 것이라 기대할 수 있음

“장애인을 위한 보조 장치가 해외 공연장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다고 알고는 있습니다만, 현재 있는 기술들을 비용상 이유로 도입하지 못한 것들이 이 공간에 시도해볼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행위자 측면에서도 시/청각 장애예술로 실험적 프로젝트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들을 보조할 최신기술장비 구비도 필요할 것입니다.”

“장애인 예술전용극장을 통해 사회 참여도 야기할 수 있는 것이고. 복지에 대해서는 영리를 생각한다면 실패한 복지죠. 제한된 예산 안에서 움직일 수 있겠지만, 이 안에서 영리적인 것을 생각해서 효율적, 경제적으로 생각한다면 어렵지 않나. 그런 것을 넘어서서 우리가 가진 현재 기술을 활용해서 선제적으로 적용해서 가야겠다 생각해요. 그 시설을 최신 기술과 하이테크가 들어가게 그렇게 만들어 놓는다면, 비장애예술가들도 고퀄리티의 음악, 실험적 음악들을 구현하는 것을 여기서도 할 수 있다는 거죠. 장애가 없는 분들도 그 안에서 충분히 다른 예술작품들을 경험할 수 있는 극장이 될 수 있다면 좋겠어요.”

“홍대 시어터에 스크린 갖다 놓고 양쪽에 자막 쏘고, 수화통역사하고 여러 가지 시도를 했는데, 좋았다는 의견도 있지만, 비장애인이거나 필요로 하지 않는 장애인들은 공연에 집중하고 싶은데 방해가 된다는 의견도 있었어요. 그래도 저희는 약간 방해를 받더라도 접근성을 확보하는 게 낫다고 개인적인 가치판단을 가지고 있는데, 많은 관객들의 취향이나 성향을 고려한다면 그런 것을 최소화하는 게 좋잖아요. 요즘은 구글글래스 이용하면 될 것 같은데. 그런 자막 시스템도 자유롭게 쓰면서도 자막을 안보는 관객들이 크게 방해를 안 받는 공연장. 그걸 구현하는 완성도에는 차이가 있겠지만 목표는 그렇게 설정되어야 하지 않을까.”

□ 첨단기술장비 도입에 의한 예술활동 보조와 관객 편의 제공

- 기술융합이 예술활동 보조와 장애인 문화향유 지원은 물론 장애예술의 탁월성을 높이는 데 다방면으로 활용되고 있음
- 시청각 보조기구의 제공으로 작품이해를 돕는 것뿐만 아니라 공감각을 이용한 작품 창작 등 첨단기술을 활용이 가능한 사례는 무궁무진하므로 선제적인 활용체계와 기술정보를 갖출 필요 있음

〈'시각화된 소리를 위한 진동Vibration for Visualized Sound: VVS' 프로젝트〉⁷⁾

“시각장애인들이 지휘를 보지 못하기 때문에 합창/합주가 어렵습니다. 영국 민간단체와의 협력으로, 지휘자의 비트를 센서 자극을 통해서 시각장애 연주자가 전달받을 수 있도록 하는 프로젝트에 참여중입니다.”

“지휘자가 지휘할 때 손목/지휘봉에 센서를 달고, 연주자들은 허리에 차고 자극을 받는 방식. 지휘의 비트나 다이내믹, 악상을 표현하는 모션이 디테일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모두 다른 자극으로 익숙하게 느끼도록 하는 데 연구를 집중하고 있습니다.”

“시각장애 아티스트들이 실력을 갖출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 중이에요. 이 프로젝트를 통해 장애인들이 아쉬운 소리를 할 필요가 없도록 간편하고 지휘활동에도 방해가 안 되는 방법을 찾기 위해 노력하고 있어요.”



〈VVS 프로젝트에서 쓰일 모션센서 '버즈 비트' 시연 모습〉

7) 한국일보(2018.10.20) 관련기사 이미지 인용, FGI 발언 내용

3.4 이슈4: 프로그램 방향성과 범위 · 역할

(1) 장애인예술극장이 추구해야 할 프로그램의 방향성은 무엇인가?

□ 장애인예술, 장애예술 전반의 예술성 향상 목적화

- 우수프로그램/콘텐츠 기획과 유치, 공연과 연습을 위한 장비와 공간의 지원
- 공연장 자체가 아마추어 예술가에 기회도 되어야 하지만 높은 수준의 공연을 하는 공연장으로서의 정체성도 가져가야 함
- 이곳의 공연이 보편적 기준 이상을 만족한다는 신뢰는 쌓여야 함. 모두에게 열려 있고, 예술적 탁월성을 보여주는 기획이 필요함

〈언리미티드 Unlimited〉

- 영국의 장애인예술창작지원 프로그램으로, 장르의 구분 없이 뛰어난 장애인예술가 또는 예술단체의 열정 있고 창의적인 프로젝트를 선정함
- 영국 내 및 전세계적으로 장애인예술에 대한 개념 변화를 이끌어내는 것을 목적으로 수준 높은 작품의 창작을 지원함
- 2년마다 개최되는 Unlimited Festival 기획. 2013-2016년 사이 약 2,300일에 해당하는 공연과 전시를 지원하였으며, 이는 130,000명의 관객을 동원하였음
- 셰이프 아츠(Shape Arts)와 아츠어드민(Artsadmin)이 공동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잉글랜드예술위원회, 스코틀랜드예술위원회, 웨일즈예술위원회, 사우스뱅크 센터, 트램웨이, 스피릿 오브 2012, 영국문화원 등의 다양한 파트너들과 협력하고 있음



□ 비장애 예술가와의 협력을 돕는 구조 마련

- 예술에서 타 분야 아티스트와의 협업구조는 굉장히 중요함. 비장애인의 예술협업 환경은 나날이 개선되는 데 반해, 장애예술지원공간은 기본적인 시설여건이 워낙 열악하며 운영 개념적으로도 뒤떨어져 비장애인들의 창작환경과 장애예술 창작환경은 더욱 격차가 벌어지고 있음
- 장애문화예술의 발전과 활로를 모색하는 열린 공간으로서의 기능이 포함되었으면 함. 공연 공간 뿐 아니라 연습 공간, 창작 공간 등 다양한 장르 예술인들이 체류하며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한다면 협업을 활성화하고 장애예술 저변을 확장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임
- 장애예술공연의 예술적 가능성과 탁월성을 발견할 수 있는 기회의 제공도 다양한 공연의 상연을 통해 이루어져야 할 것임

“장애예술이 쇠퇴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비장애인과의 협업기회 확보가 이루어져야 해요. 상설프로그램으로 장애예술인의 참여와 활동을 이끌어야 하는 것이지요. 교육을 받는 입장이나 장애인으로서가 아닌, 일정한 역할을 담당하는 협업을 하게 하려는 시도가 있었지만 이후 참여자가 예술가로 자리잡고 삶의 변화를 가져오는 데까지 이르는 경험은 없었습니다. 일단 외부의 협력자들과 만날 수 있는 프로젝트가 상시적으로 있어야 하고, 궁극적으로는 소득활동과 일자리 창출까지 이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라하프’가 공연을 올리고 성과를 보기까지는 뮤지컬컴퍼니 전문가그룹과 협업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전용 극장 같은 이런 창작 공간이 꼭 장애예술인끼리가 아니라 여러 분야의 사람들이 만날 수 있는 플랫폼 같은 역할을 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사실 저희도 대관을 받고 막상 공연을 만들어 낸 것 보면 너무 퀄리티가 떨어지네 하는 단체들도 있어요. 장애인 전용 공간이 지어지고, 장애인 아티스트 분들도 서시지만, 아마추어적인 장애인들이 발표를 할 수 있는 공간으로의 활용의 병행이 가능하다고 생각하거든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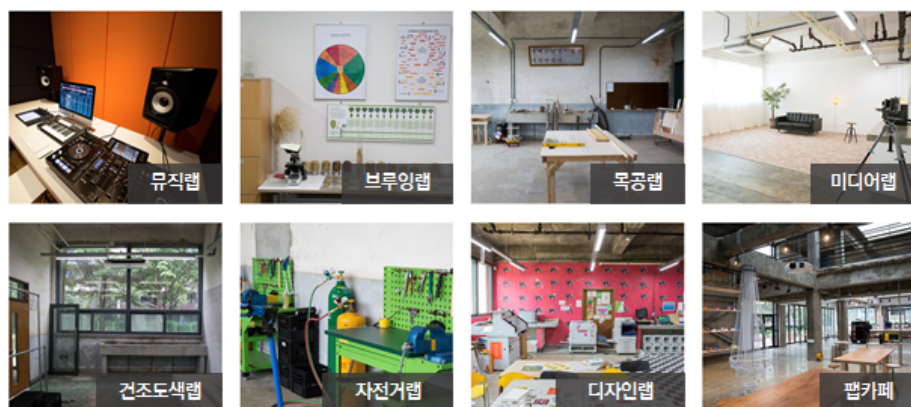
“이런 공연장이 생긴다고 하면 모든 사람에게 열려 있되, 그 안에서 예술적인 탁월성을 보여줄 수 있어야 할겁니다.”

□ 장애인 예술창작, 협력 프로그램의 확대

- 전문예술인 활동을 위한 목적이 아니더라도 공간에 체류하는 시간을 높이고 충성도 높은 커뮤니티를 구성해 나가기 위해서는 예술체험·창작 프로그램의 제공과 입주형식의 레지던시 공간을 마련하는 것이 효과적임
- 장애예술, 특히 지적장애인과 비장애인 협력관계에서 기술적 세련이 요구되지는 않으며, 협업 중의 소통과정에서 예술성을 발견해가는 방법론을 취하고 있으므로 협력 공간제공 및 프로그램의 대상을 장애유무나 전문예술활동 경력과 같은 사항으로 제한할 필요가 없음

〈경기상상캠퍼스〉⁸⁾

- 옛 서울대학교 농업생명과학대학 부지(수원시 권선구 서둔동 소재)에 위치. 2016년 6월 생활문화와 청년문화가 혼합된 복합문화공간으로 개소.
- 부지 내 생활1980(구 농원예학관), 청년1981(구 농화학관), 공작1967(구 농업공작실), 경기생생공화국(구 농공학관) 4개 동의 주요 공간 사용
- 경기청년문화창작소, 경기생활문화센터, 경기생생공화국의 문화예술 캠퍼스 운영 중
- 레지던시에 입주 중인 곳은 24개 팀이며 소프트웨어개발 / 독립출판 / 영화 / 캐릭터디자인 / 보드게임디자이너 / 패션 등 각종 분야 전문가들이 모여 있어 연계와 협작이 자연스럽게 일어나고 있음



〈경기상상캠퍼스 창작지원 공간시설〉

8) 경기상상캠퍼스 웹페이지(www.sscampus.kr)

(2) 장애인예술의 활동 범위와 역할은 어디까지 확대될 수 있는가?

□ 예술 행위자로서의 장애인에 대한 환경 조성 및 인식 개선 노력

- 해외에 장애인예술 관련한 훌륭한 프로그램 사례가 많지만, 국내에 직접 적용하기에는 실제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음. 예를 들어 영국이나 일본은 장애인들을 위한 생활지원금만으로 기본생활을 영위하는 데 어려움이 없기 때문에 예술 활동에 보다 집중할 수 있고 삶의 질을 고양하는 차원에서 접근이 가능함
- 장애인의 자립이 불분명한 상태에서의 예술활동은 부모와 가족의 개입이 많아지고, 창작의 주체성과 거리가 멀어지는 결과를 가져오게 됨. 장애인예술인 이전에 장애인의 생활환경에 대한 고민이 선행되어야 장래 예술가가 발굴될 수 있음
- 장애인예술 창작자가 지속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기 위해, 장애인예술인 이전에 장애인의 생활환경에 대한 고민이 선행되어야 장래 예술가가 발굴될 수 있음. 그러한 취지의 상설프로그램으로 장애인의 참여와 활동을 지속적으로 이끌어내는 노력이 필요함

“일본의 경우, 장애인예술 관련하여 시민활동, 풀뿌리 활동에서 창작자 지원에 있어 참고할 사례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거기서 얻을 수 있었던 인사이트는 거대공간보다도 일상에 예술이 스며들 수 있도록 작은 공간에 섬세한 프로그램으로 다가갈 필요가 있다는 것이었어요. 국내 각 지자체 문화재단에서 장애창작자 지원사업으로 우수사례로 뽑힌 경우에도 장애창작자는 삶이 바뀌기 어렵다는 한계가 존재합니다. 문화다양성 측면에서 좋은 프로그램들을 기획자들이 많이 개발하는 것이 간절합니다.”

“장애인예술극단의 경우 아직 티켓파워를 가질 만큼 시장이 조성되지 않았으므로, 장애인예술 육성의 과정상 유예를 두는 차원으로, 공연 시 티켓판매 부담에서 자유로울 수 있었으면 합니다. 공간 대여와 각종 사용료에 혜택이나 무료정책이 꼭 있어야 할 것이고요. 장애인예술은 창작자가 행복한 상태에서 활동지속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복지 정책적 자금지원이 안정적으로 뒷받침해줄 필요가 있죠.”

□ 직접적 공간이용 혜택과 함께 장기적인 지원방안의 모색

- 장애인예술활동에 대한 정책적 지원은 접근개념에 대해 충분히 연구가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으며 사회인식을 이끌어가기에 모자란 부분이 많음.

다양성과 소수자에 대한 배려를 문화정책의 중요 축으로 두고 장기적인 지원과 발전을 모색할 필요 있음

○ 국내 장애인 예술정책 현황

- 2007년 장애인 차별금지법 제정, 많은 지자체에서 관련 조례 제정. 최근 문화 예술 관련 '장애인 문화예술지원 조례'가 광역지자체를 중심으로 수립, 2018년 현재 17개 광역지자체중 11곳이 제정을 마침
- 주요내용에는 장애인 예술활동의 실태조사, 기본계획수립, 장애인예술가 육성 및 지원 등이 포함. 흥미로운 점은 '장애인문화예술단체'를 규정하는 항목인데, 2년 이상의 활동과 20명 이상의 회원 등 기존 지자체에서 지원하던 문화예술단체에 적용하던 기준을 그대로 차용하고, 그리고 장애인예술가를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등록 장애인'이면서 문화예술활동을 하는 자'로 규정함
- 이는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차원의 지원으로, 그 대상인 장애인예술가를 의학적인 관점으로 볼 수밖에 없는 간접적 규정이라는 한계를 가짐

○ 해외 장애인 예술정책 현황

- 최근 영국, 호주 등지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문화다양성에 대한 논의의 핵심에는 장애인 예술정책이 자리하고 있음. 특히 장애인예술에 대한 새로운 접근법으로 여겨지고 있는 '포용적 예술(inclusive arts)' 또는 '포용적 예술활동(inclusive arts practice)'은 장애인 예술의 지평을 근본적으로 넓히는 역할을 넘어 기존의 문화예술정책과 예술영역 전반에 눈에 띄만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으며 그 발단이 된 것이 영국의 '평등과 다양성법' 제정임
- 이 법의 제정 이후 영국 정부는 적극적으로 문화다양성 정책을 전면에 내세워왔으며, 그 정책의 시행 기관인 영국 문화예술위원회는 문화다양성 정책을 5대 정책 전략 중의 하나로 꼽음. 소수자의 문화적 권리 향상을 위한 문화다양성 정책을 시혜적이거나 보호적인 관점이 아니라 국가가 지향하는 '창조적 역량'의 핵심으로 주목하고 있음

3.5 이슈5: 운영체제와 연계 · 협력

(1) 장애인예술극장으로서의 전문성을 갖추기 위한 운영체제의 조건은 무엇인가?

□ 세분화된 예술 접근성 전문 인력과 창조적 활동 조력자 양성

- 일반 공연장에서는 접근성에 대한 구조적인 미비점을 맨투맨 서비스로 보완하고 있는데, 장애인 입장에서 불편을 최소화 하는 공간디자인이 필요함
- 해외 사례에서 일부 확인되는 바, 전문적인 경험을 축적한 ‘엑세서빌리티 매니저’와 같은 인적자원의 육성도 병행되어야 함
- 장애인예술과 엑세서빌리티 측면의 ‘실험적 공간’으로서, 향후 유사 예술활동 거점들이 생겨날 때 검증된 서비스와 노하우를 전수하는 역할을 해야 함

“장애인 관객이 오셨을 때 항상 누군가는 그 사람을 위해서 자기 업무를 포기하고 뛰어가서 해야 하는 건데. 그리고 아르바이트 직원들의 숙련도가 떨어지는 문제가 있어요. 하우스 매니저도 자주 바뀌고, 안내원도 자주 바뀌다보면 지속된 서비스가 될 수가 없는 거죠. 극장을 짓게 되면 건축적인 것도 중요하겠지만, 그 공간을 운영해왔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많이 들어보시고 설계에 반영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해요. 새로 짓게 되면 운영하는 공간이나 사람에 대한 문제도 고민이 필요할거라 생각 되네요.”

“와상장애인 이용까지 생각해서 공간을 크게 만들어놨는데, 그렇게 크게 만들어진 공간이 불편할 때도 있어요. 그러면 공간이 사용될 때와 안 사용되지 않을 때에 대한 운영도 다 준비를 하셔야 하는 거죠. UD라고 했을 때, 그래야 전용물이 되지 않아요.”

“영국 페스티벌에 가서 보니까, 장애인들이 엑세서빌리티 매니저 일을 하더라고요. 시각장애인과 지적 장애인이 어떻게 다른 사람들과 유사한 정도의 체험이 가능하게 할 것이냐. 기술적인 문제에 철학적인 문제기도 하고. 음악에 대한 청각장애인, 미술에 대한 시각장애인의 경험 이런 것을 생각하면 굉장히 복잡하고 끝이 없는 문제죠. 이 부분에 대한 충분한 경험을 갖춘 접근성 매니저들이 있더라고요. 우리는 그런 게 없기 때문에 이런 공간이 생긴다면 여기서 일하는 분들이 그 역할을 할 수 있잖아요. 여기서 온갖 실험을 해보고, 온갖 장애유형의 사람들을 응대하면서 축적된 경험들을 가지고. 그런 거점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공간 이상의 의미죠.”

□ 서비스디자인적 접근과 엑세서빌리티 전문인력 육성/확산의 역할 담당

- 체계적인 접근성 메뉴의 개발이 먼저 이루어져야 할 것임. 또한 개별적 상황발생시 문제 해결을 위한 서비스 디자인과 대응 노하우가 축적될 필요 있음
- 예술 접근성에 대한 전문적인 교육과 인적자원의 활동이 동시에 일어나고, 이를 직접 실험하고 확산하는 접근성 역량의 중심 장으로 기능해야 할 것임

〈영국National Theatre 접근성(Access) 메뉴〉⁹⁾

홈페이지에 13개 항목으로 이루어진 접근성 메뉴 제공

- Audio-described performances **음성해설 공연**
- Stagetext Captioned performances **대사 자막 공연**
- Smart Caption Glasses **스마트 캡션 안경**
- Signed Performances **수어 공연**
- Relaxed performances **발달장애 대상 공연**
- Facilities for visually impaired people **시각장애인 시설**
- Facilities for deaf and hearing impaired people **청각장애인 시설**
- NT Access List **장애인 티켓할인 등 메일 등록 안내**
- Supporting your visit to the NT **극장 방문 안내/지원**
- Access to OO theatre **3개 홀 각각의 입장로, 층별 객석 세부묘사**
- Website Accessibility **텍스트 크기 조절 등 웹사이트 이용 안내**

〈그라이아이 시어터 접근성 지원자 제도 Access Supporter〉¹⁰⁾

- 작업하거나 훈련하는 모든 장애인들이 필요로 하는 접근성 요구사항을 최대한 충족시키고, 잠재능력을 최대한 끌어낼 수 있도록 적절한 보조 인력을 지원하는 방침을 갖고 있으며, 각각의 역할을 접근성지원자, 수화 통역자, 커뮤니케이션 지원 인력, 창작 조력자, 음성해설자, 대필자, 순화자로 세분화해 정의함
- 창작조력자 (Creative Enabler): Graeae의 작업에서 태어난 개념. 장애인 예술가가 작업하는 데 대한 접근성 지원 개인 관리 또는 기본 관리 작업을 제공하기보다는 자신의 작품을 만들고 발표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람

9) National Theatre 웹페이지(www.nationaltheatre.org.uk)

10) '무대 위 장애예술, 그 해석과 제안', (2013.12) 취재내용 발췌

(2) 지속적인 확산을 위해 추구해야 할 연계·협력 방안은 무엇인가?

□ “초기구상시점부터 중장기적 장애예술공간들의 확산까지 내다보아야”

- 장애인예술극장이라는 중심 거점에서 시작해 위치 접근성 높은 다수의 지역 거점으로 분산해 장애예술 문화공간을 확산해 가는 형식의 중장기적 계획을 준비할 필요 있음
- 현재 장애인예술 지원을 담당하고 있는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관련 부처들이 개별적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어 통합적인 장애인 문화예술 지원이 이루어지지 못함. 한 자리에서 중앙정부의 계획과 역할, 지자체에서의 역할을 명확히 하고 장애인 문화예술 시설과 지원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과 실행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임

“입지조건을 따질 때... 반대로 공간이 사람을 찾아갈 필요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전용극장 하나에서 끝맺지 말고 거점을 확산해 타 공간과의 연계를 이어가는 것이 이상적이겠지요. 주변 문화예술공간과의 교류 또한 적극적이어야 할 것입니다. 운영자가 인접공간의 프로그램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폭넓은 정보를 제공하는 것 또한 접근성을 높이고 공간정체성을 확고히 하는 방법이 될 것입니다.”

“중앙정부에서 예술전용극장을 만들면, 의견을 전체적인 관점에서 절충을 했으면 좋겠다는 아쉬운 점이 있어요. 시에서도, 외부에서도 요구하는 사항이 전부 다 별개인 거예요. 아트상품 판매처, 레지던시, 전용극장 다 들어보면 복합문화예술 공간이 필요한 것 같은데. 이런 것들을 각 부처에서 개별적으로 추진하다 보면 효과적으로 사업이 추진되기 어려울 거예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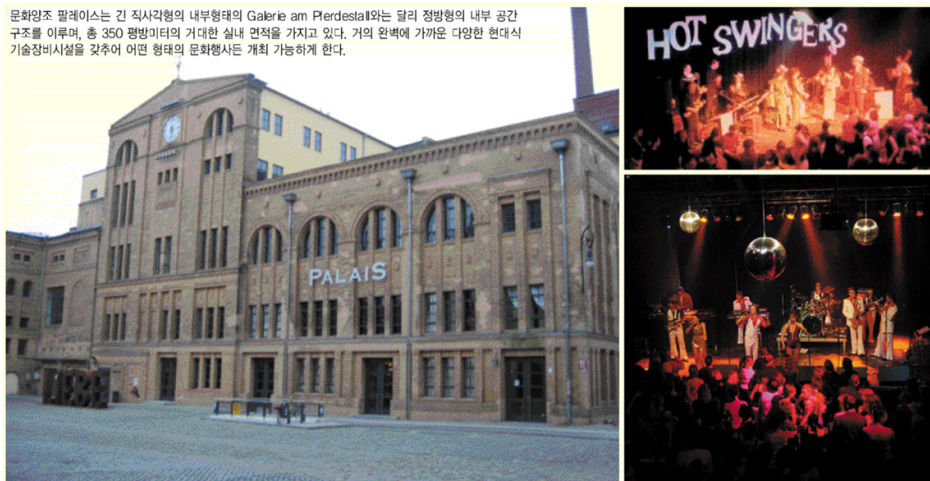
□ 지역 문화예술공간과 연계 및 특성화 지구 계획 필요

- 공간조성 목적성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하나의 시설에 그치지 않는 중장기적 지속 및 확산 계획을 가져야 할 것임
- 입지 지역의 문화예술공간과의 연계 거점화 계획 혹은 국내 조성되거나 준비 중인 문화예술단지로의 편입 등 다각적인 방안을 검토해야 함

독일 문화양조장 <Kulturbrauerei>

- 1962년에 폐쇄된 세계적인 규모의 맥주공장 숄트하이스(1842년 개장)의 공간 활용에 관련하여 70년부터 논의가 시작되었으며, 77년 문화유산 보호구역으로 선정. 1998년 정부와 민간투자를 통해 내부 리모델링에 착수, 2001년 '문화양조장'으로 재탄생함
- 각 공간마다 특색을 살리도록 디자인되었으며, 수익을 위한 상업시설도 함께 포함. 현재, 마트, 가구점, 커피숍, 클럽 등이 입점해 있어 문화예술과 서비스업을 묶은 복합공간으로 포지셔닝함
- 4개의 광장, 8개의 상영극장, 다목적 공연장, 전시실, 장애인 전용극장 (람바참바) 등으로 구성
- 람바참바 극장은 다운증후군 배우들로 구성된 극단이 운영하는 공연장으로 1991년 다운증후군 자녀를 둔 부부에 의해 창단, 발달장애인 및 기성연극인도 포함

문화양조 팔레이스는 긴 직사각형의 내부형태의 Galerie am Pierdestall와는 달리 정방형의 내부 공간 구조를 이루며, 총 350 평방미터의 거대한 실내 면적을 가지고 있다. 거의 완벽에 가까운 다양한 현대식 기술장비시설을 갖추어 어떤 형태의 문화행사든 개최 가능하게 한다.



문화양조장 내 공연장 전경과 공연장면¹¹⁾

11) ARKO webzine(2006.4) 이미지 인용

4. 향후 사업 추진 방향 및 프로세스

4.1 라운드테이블 주요 논의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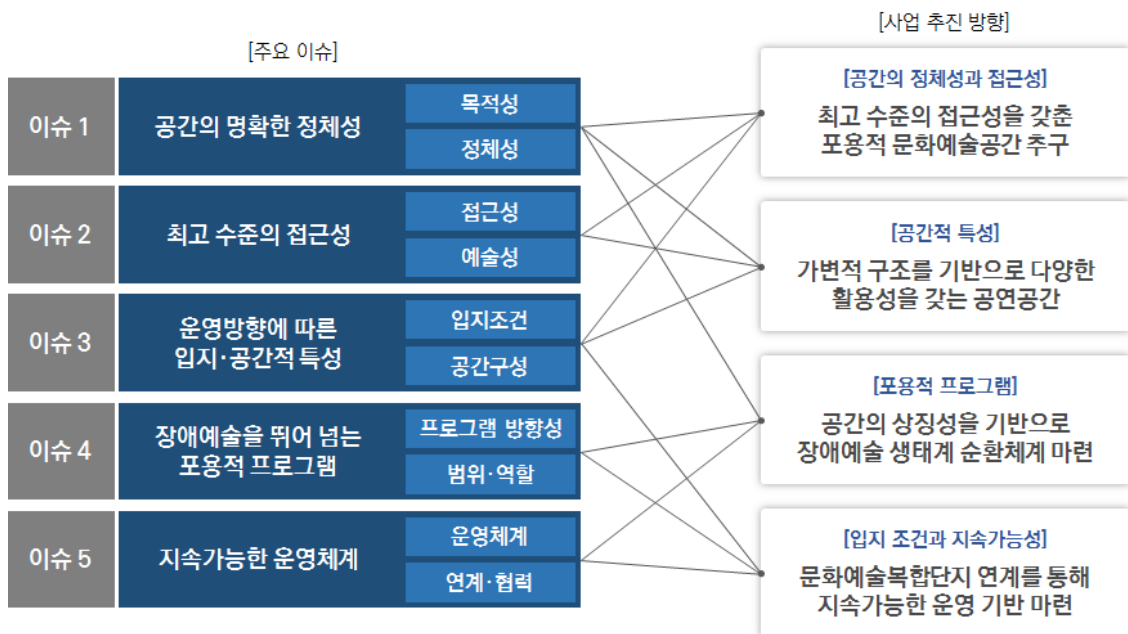
4.2 장애인예술극장 조성 및 운영의 기준점

4.3 사업추진 프로세스

4.1 라운드테이블 주요 논의 결과

- 5대 이슈에 대한 라운드테이블 논의 결과를 반영, 사업추진 방향성 도출
- 장애예술 관련 프로그램 기획자, 장애인단체장 등 각계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에 공간조성 이슈를 공유함. 현재 장애예술·공연예술계가 필요로 하는 공간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초기 사업구체화에 대한 방향성을 도출함
 - 최고 수준의 접근성과 포용적 문화예술공간, 가변적이고 활용도 높은 공간, 장애예술 생태계의 상징적 기반으로서 복합단지 연계를 통해 지속가능한 운영 기반 마련 등의 방향성이 논의됨

[그림 4-1] 사업 추진 방향의 도출



□ 사업 추진 방향 및 주요 내용

1) 공간의 정체성과 접근성

: 최고 수준의 접근성을 갖춘 포용적 문화예술 공간 추구

- 공간에 대한 물리적인 접근성 뿐 아니라 콘텐츠의 전달방식과 공간운영 체계, 예술가/관객 서비스 측면에서 최고수준의 접근성이 실현되는 문화공간 추구
- 현재의 건축법 기준을 뛰어넘는 획기적인 기술적 해법이 적용된 시범적 공간을 조성하여 '접근성의 예술'을 구현하고 사회적 인식변화 견인 필요

2) 공간적 특성

: 가변적 구조를 기반으로 다양한 활용성을 갖는 공연 공간

- 공간 유형은 기본적으로 공연공간의 특성을 중심기능으로 하되, 실험적인 창작 활동을 포용하고 지원하는 차별적 프로그램을 적용할 수 있는 performance space 지향
- 공연공간의 규모 자체는 크지 않아도 되지만, 장애예술의 특수성과 다양한 예술/창작 활동을 포용할 수 있는 기술적인 해법이 적용된 가변적 공간 필요

3) 포용적 프로그램

: 공간의 상징성을 기반으로 장애예술 생태계 순환체계 마련

- 이음센터를 통해 교류/협업의 네트워킹 과정을 지속적으로 확장하고, 극장 조성을 통해 장애예술 작품의 창작, 메소드 개발과 공유, 기존 공연장과의 연계 등 장애예술 생태계의 순환체계 마련
- 공간의 상징성을 바탕으로 해외 예술단체와의 교류 활성화, 문화다양성 프로그램의 개발 등 시행착오를 감수하더라도 적극적으로 프로그램 운영 및 공간 활성화 전략 필요

4) 입지 조건과 지속가능성

: 문화예술복합단지 연계를 통해 지속가능한 운영 기반 마련

- 장애인예술극장 단독으로 조성되는 것보다는 공연공간을 중심으로 창작/교육공간, 연습공간 등 연계 가능한 시설과 함께 조성되는 복합 문화공간 형태로 접근하는 방안 검토
- 광역적인 접근성 측면에서도 입지 조건을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기존의 문화

예술 활동과 지역적으로 연계가 가능한 입지선정을 통해 장애인을 위한 특수시설이 아닌 문화예술 공간으로서 지속성 확보 필요

4.2 장애인예술극장 조성 및 운영의 기준점

□ 다음과 같이 사업추진 방향 및 기준점을 도출함

- 본 연구에서 이루어진 의견수렴과정과 기초조사 단계까지, 의견수렴 대상자와 장애예술 관계자들의 공간조성에 대한 기대 및 제언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음
- 향후 장애인예술극장의 조성을 준비하는 절차 과정상에서는 물론 이후 운영시의 기준에 반영할 필요 있음

[그림 4-2] 장애인예술극장 조성 및 운영의 기준점

장애예술인이 주체가 되는 공간이어야 한다.
접근성을 획득하는 방법 또한 예술적이어야 한다.
유니버설디자인의 상징적 공간이 되도록 한다.
예술 창작·향유를 위한 첨단기술 구현이 가능해야 한다.
모든 불편을 해소하는 완전한 접근성을 추구한다.
장애예술 창작과 향유를 전문적으로 돕는 인적자원을 구축한다.
장애예술의 다양한 가능성을 발견하기 위한 협업체계를 마련한다.
장르·장애유형별 창작/연습 공간 및 기술적 지원을 제공한다.
국내외 장애예술단체와 협력하여 예술활동을 지원한다.
지역·문화공간과의 연계 및 중장기적인 확산 체계를 마련한다.

1) 최고 수준의 접근성을 갖춘 포용적 문화예술공간 추구

- 이용자가 가질 수 있는, 존재하는 모든 불편에 대응하는 접근성을 갖춘 공간을 추구함. 장애인 문화향유권을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차원을 넘어, 공간디자인과 프로그램

램운영 및 콘텐츠 전체적으로 포용적 문화예술 경험을 제공하여 모든 이들에게 열린 문화다양성의 체험장으로 기능하도록 함. 배려와 공존의 가치를 공유하는 발전적 예술공간 모델의 제시

2) 가변적 구조를 기반으로 다양한 활용성을 갖는 공연공간

- 첨단 공연장 조성 경향인 완성도 높은 가변적 구조를 기반으로 하여 다양한 형태의 공연과 전시·퍼포먼스를 수용하고 대중과의 커뮤니티 접점을 확대하는 세계 최고수준의 예술공간을 구현함

3) 공간의 상징성을 기반으로 장애예술 생태계 순환체계 마련

- 차별화된 정체성의 발현을 위해서는 수준 높은 장애예술 프로그램이 개발되도록 하는 것이 순서이며, 예술가의 발굴과 장애예술 생태계의 조성이 이루어지도록 특성화된 창작지원과 활성화 프로그램개발 노력이 지속되어야 함. 장애인예술극장을 구심점으로 다양한 창작활동이 일어날 수 있도록 국내외 예술가단체에 대한 공간과 프로그램의 제공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함

4) 문화예술복합단지 연계를 통해 지속가능한 운영 기반 마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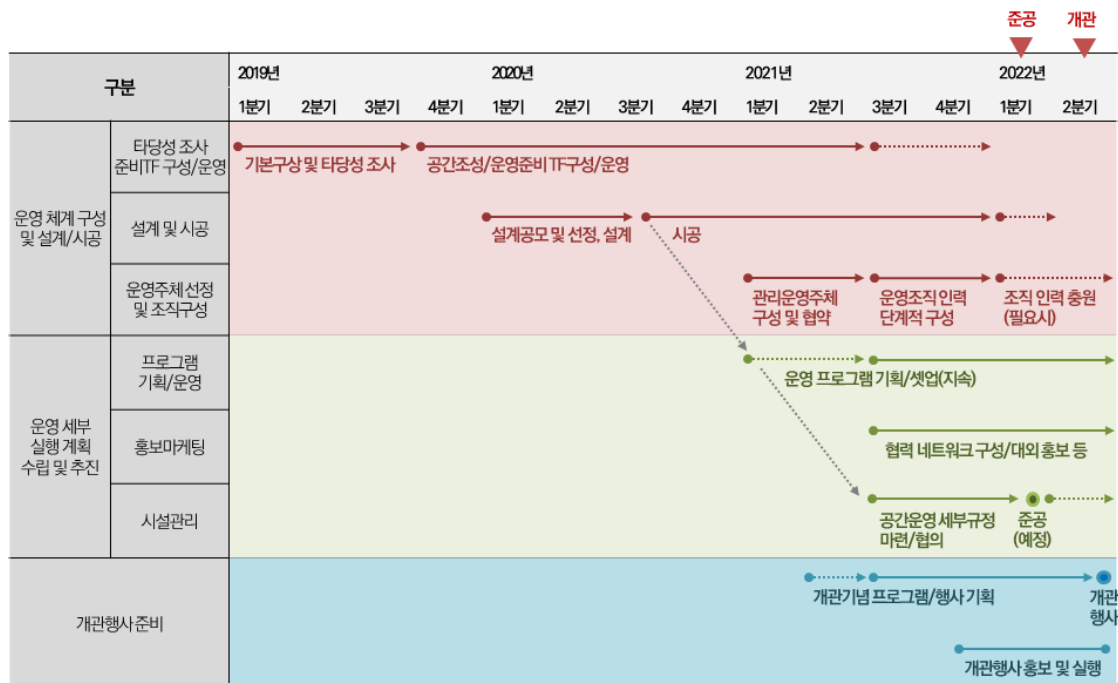
- 대중적 커뮤니티 확장이 포용적 문화예술공간이라는 조성목적 달성과 깊게 연관됨. 장애인예술극장의 단독 건립보다도 복합문화예술공간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주변 연계가 가능한 입지 선정이 조성 초기단계 핵심적인 추진사안이 되어야 할 것임

4.3 향후 사업추진 프로세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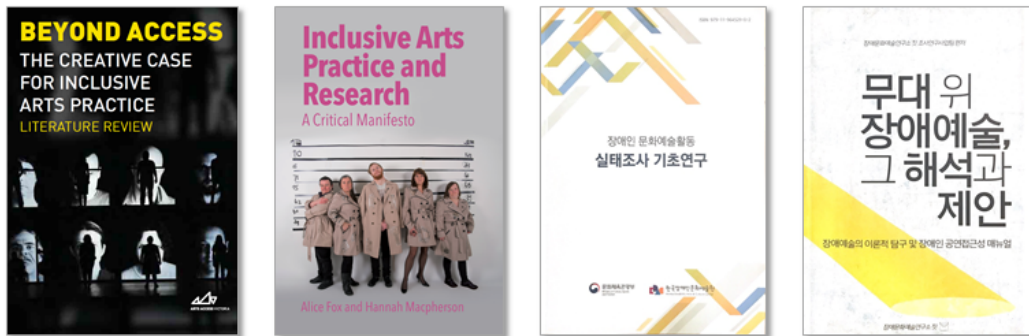
□ 부문별 공간조성 및 운영준비 프로세스

- 전례를 쉽게 찾기 힘든 공간인 만큼, 2019년도에 장애인예술극장 조성을 위한 기본 구상과 타당성 조사를 통해 보다 구체적인 운영방향과 공간 및 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도록 함
- 이 과정에서 적합한 입지에 대한 검토와 선정 절차를 거치도록 하며, 장애인예술극장 운영 프로그램과 운영체계 등 중장기 계획과 지속가능한 협력 방안 등 중장기적인 로드맵을 확립할 필요 있음
- 공간조성과 운영준비를 위한 TF팀을 구성, 운영을 통해 향후 설계공모와 선정, 설계 과정 및 관리운영주체 구성 등이 진행되도록 함. 관리운영주체 구성 이후에는 단계적으로 운영조직을 갖추어나가면서 이음센터와 연계 등을 고려한 운영 준비와 개관 및 프로그램 기획이 이루어져야 함
- 2021년 하반기 준공을 목표로 하며, 개관행사 및 홍보, 운영 프로그램 기획 등을 고려하여 개관은 2022년 상반기에 이루어지는 방안을 검토하여 추진함

[그림 4-3] 부문별 공간조성 및 운영준비 프로세스



참 고 자 료



- Beyond Access – The Creative Case for Inclusive Arts Practice, Arts Access Victoria(2015)
- Inclusive Arts Practice and Research, Alice Fox and Hannah Macpherson
- 장애인 문화예술활동 실태조사 기초연구, 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2018.5)
- 무대 위 장애예술, 그 해석과 제안, 장애문화예술연구소 짓(2013.12)
- 장애인 문화예술 실태 및 센터 건립타당성 조사, 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2012.12)
- 장애인 대표 공연예술단체 육성 지원 방안, 한국문화관광연구원(2017.6)
- 장애인예술 장르별 지원방안 연구, 한국문화관광연구원(2014.12)
- 문화다양성 실태조사 보고서, 문화체육관광부(2017.12)
- 문화향수실태조사 통계정보보고서, 문화체육관광부(2017.12)
- 서울시 유니버설디자인 통합 가이드라인, 서울특별시 문화본부 디자인정책과(2017.1)
- Accessibility and Technology: Remote Access to Art through Telepresence Robotics, Jenna M.Hebert, The University of San Francisco(2016.12)
- Arts Access made easy, VSA arts

연구수행기관

(주) 메타기획컨설팅

연구총괄

최도인 | 메타기획컨설팅 Knowledge 본부장

연구책임

김영익 | 메타기획컨설팅 Public 팀장/선임컨설턴트

연구원

엄태은 | 메타기획컨설팅 협력컨설턴트

강재훈 | 메타기획컨설팅 경영전략부 팀장/선임컨설턴트

박주현 | 메타기획컨설팅 Knowledge 어시스턴트

장애인예술 전용극장 조성을 위한 전문가 의견수렴 및 기초조사 최종보고서

발행일 | 2018년 12월

발행처 | (재)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

전화 02. 760. 9700

홈페이지 www.i-eum.or.kr

컨설팅기관 | (주)메타기획컨설팅

전화 02. 3673. 4591

팩스 02. 6455. 5480

홈페이지 www.metaa.net

이 책은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받는 저작물이므로 무단전재와 무단복제를 금지하며, 이 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용하려면 반드시 저작권자의 서면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